

2025.05.25 목 오후 8:00 · 79분 49초

참석자 1 03:44

한 분 더 들어오시는 거죠?

참석자 2 03:47

네네 지금

참석자 1 03:48

여쭙고 있습니다.

참석자 1 04:32

아

참석자 1 04:38

네 그러면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시작할까요? 네네 정우 님이 그러면 이제 준비하신 거 말씀해 주세요.

참석자 2 04:50

네 알겠습니다.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네. 일단은 마지막 멘토링 때 멘토님께서 저희에게 요청하셨던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의 내용이 요구 사항 기능서랑 프로젝트 기획서 수정 방안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시장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LLM 방향성보다는 사내 문서 검색 시스템 쪽으로 시장 조사를 좀 더 추가하고 수정해라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참석자 2 05:37

나머지 부분은 다 요구 사항 기능서랑 프로젝트 기획서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자 1 05:45

지금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이것들 하나씩 한번 일단 먼저 볼까요?

참석자 2 05:51

네 알겠습니다. 그 가상의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스토리텔링 식으로 만 작성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 팀 힛톤을 탄 신입 사원 분석가라고 해서 해당 직원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 저희 서비스를 쓸 건지 대략의 상황을 가정해서 일단 적어봤습니다.

참석자 1 06:19

깔끔한데 일단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서가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정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 어떤 문서를 쓸 건지 예를 들면 프로덕트인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적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품을 그때그때마다 찾으려면 어떤 특정 경로에 들어가가지고 문서를 뒤졌어야 되는데

참석자 2 06:49

네네

참석자 1 06:50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가 에이전트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네 프로덕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적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참석자 1 07:04

그리고 위에 코드 레퍼토리오 정리도 안 되어도 밑에 코드에 대한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 이제 도큐멘테이션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을 알려면 사수들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코드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야 된다는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래된 코드는 이제 약간 컨버전 하는데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노동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또 위에 또 적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측 모델도 그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좀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1 07:43

그래서 내부 지정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실제로 내부 서비스에서 노트북을 띄워서 거기서 이렇게 일일이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고 사내에 머신러닝 모델들이 잘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료들을 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결과가 예측으로 나와서 내가 데이터를 다시 붙이고 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할 작업이 많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절약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석자 2 08:13

그럼 문제 상황이란 그거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것도 문제 정의에 적으면 될까요?

참석자 1 08:20

네 그래서 그걸 좀 약간 구체적으로 좀 더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수 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는 잘 읽혀요.

잘 읽히고 어떤 느낌인지도 알 것 같아요.

참석자 2 08:34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여드릴 건 제안 솔루션은 수정을 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대로 뒀고요.

참석자 1 08:48

예 이것도 아까 제가 위에서 말했던 거에서 추가될 것만 있으면 그런 부분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대로 가셔도 되고

참석자 2 08:57

네네 그리고 사실 이다음에 있었던 원래 저번에 수정 받기 전에 내용이 여기에 다른 서비스와의 비교 장단점 분석하기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멘토님께서 정말 우리 서비스가 있는 강점을 보여줄 거 아니면 일단 생략을 해도 된다고 하셨을 때 생략을 하고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대강적인 설명은 시스템 아키텍처로 대체를 했습니다.

참석자 1 09:32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네

참석자 1 09:45

좋은데 뭔가 이게 임베딩 모델 에르벳 모델 툴 공간이 다 따로 있으면 좋겠는데
뭔가 박스가

참석자 2 09:54

이렇게 이렇게

참석자 1 09:56

따로 말씀 지금 전체가 묶여 있는데 그걸 또 실선으로 한 번 더 묶을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툇끼리 묶고 인비딩 모델끼리 묶고 LLL 모델끼리 안에서 이제 묶어 놓으면 이걸 별거 아닌 건데 그냥 그냥 제가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부분

참석자 2 10:15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2 10:19

마지막으로 모델링 방안인데 이 모델링 방안 부분은 저희가 멘토님한테 수정 피드백을 받으면서 수정된 내용으로 내용을 바꿔달라고 하셔서 그걸 기준으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꿨습니다.

참석자 1 10:35

네 조금만 내려보세요. 네

참석자 1 11:00

1번에 에이전트들 내용이 하나밖에 지금 없는데 예를 들면 코드 분석만 있는데 위키 문서 히스토리 같은 거 뒤져가지고 코드 파악해 주고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 코드 컨벌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적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도 이제 모델링이긴 하지만 이제 네 다양한 이제 문서들이 있으니까 그 파이프라인 자체가 그 문서가 PDF의 경우에는 이런 파싱이 되고 이런 것들도 좀 적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이전트 1 2 3 하는 것보다 이름을 좀 달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2 11:38

그 코드 에이전트라든지 아니면 사회봉사 에이전트라든

참석자 1 11:43

네 그런 식으로 뭔가 포괄적인 이름을 하나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건 좋습니다. 그다음 그거 말고는 없어요.

참석자 2 11:52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RNR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기술 스펙들별로 나누면 좋겠다고 하셨어서 일단은 저희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술들로 분리를 했습니다.

참석자 1 12:10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역할 역할 중에 그런 것도 하나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앞에는 PM을 적어놨기 때문에 AI 엔지니어라도 적든지 이런 것들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AI 엔지니어를 저기 정우 님은 PM하고 앤드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기 다 AI 엔지니어를 달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프론트를 좀 하시는 분은 프론트 개발자도 적으면 좋을 것 같고 백을 좀 하시는 분은 백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석자 2 12:46

네 알겠습니다. 프로젝트 기획서는 일단 저희가 수정을 한 부분이 여기까지인데

혹시 뭔가 더 피드백 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추가로

참석자 1 12:58

너무 이제 너무 잘 읽히네요. 그 전부 확실히 네 그 부분만 수정하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참석자 2 13:04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으로 요구 사항 기능서 보여드릴게요.

참석자 2 13:23

요구 사항 기능서에서 변경된 부분 점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멘토님께서 사용자 입력 처리랑 그리고 세 가지 에이전트 기능들을 하나의 전체 에이전트 플로우를 묶어서 추가를 해줬으면 대분류를 추가해서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에이전트 전처리 부분을 넣지 말고 데이터 저장 부분에 데이터 전처리랑 그 부분에 대한 기능을 넣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멘토님이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 부분인데 벡터 검색 및 임베딩 부분에서 리랭크나 하이브리드 터치 같은 기능들이 요구 사항 기능수에 추가가 되면 좀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또 추가를 했습니다.

참석자 1 14:14

아 용어 이거 다 잘 적었는데 용어가 위에서는 사내 문서 에이전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또 모델 통합 및 최적화 보면 에이전트 1 2 3이라고 또 적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통일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네 그리고 위에 잠시 에이전트부터 다시 한 번 볼게요.

네네

참석자 1 14:55

저희들이 코드 분석 에이전트도 분기가 3개죠. 하나는 도큐먼트를 찾아가지고 하는 거랑

참석자 2 15:02

네네 컨버스는 그런

참석자 1 15:03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참석자 2 15:06

도큐먼트는 혹시 그 도큐먼트 부분이 그 도큐먼트를 코드로 커버전 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참석자 1 15:15

제가 이해하기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네 오래된 코드 같은 거 컨버전이나 자바 코드나 이런 것들 컨버전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코드의 이제 어떤 분석 세 번째는 이 위키나 이런 데 우리가 주간 회의를 하면서 이런 코드 배경 같은 걸 이제 오늘은 이런 걸 개발했다.

오늘 회의에서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거 했다 이런 히스토리를 남긴 걸 검색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나요?

혹시

참석자 2 15:50

그러면은 저희랑 멘토님이 뭔가 살짝 다르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보

참석자 1 15:56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원래 시나리오가 되나요?

참석자 2 16:02

저희는 일단 세 가지가 방금 멘토님이 말씀해 주신 코드 분석 그리고 코드 컨버전 자바트 파이썬이라든지 아니면 파이 2.0 버전을 3.0 버전으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한 부분이 코드가 있으면은 사내 문서 해당 코드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런 거를 출력해 준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다큐멘터리의 코드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 다큐멘터리 내용을 기반으로 코드를 생성해 주는 저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참석자 1 16:30

그럼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네

참석자 2 16:32

아 네네 네

참석자 1 16:34

그것도 괜찮네요. 그러면 1번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참석자 1 16:48

2번 같은 경우는 정책 회의록 돼 있는데 검색 저희들이 모아놓은 자료들은 막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네네 맞습니다. 정책이랑 회의록도 있나요?

참석자 2 17:00

정책은 있고 회의록은 없습니다.

참석자 1 17:02

이런 것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1 17:12

네 이것도 괜찮고 3번은

참석자 1 17:27

맨 마지막에 3번은 시각화 했을 때 어떤 포매팅을 해서 리포트 형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그때 말씀을 하나 드렸던 것 같은데 시각화 끝나고 난 결과를 이제 리포터 형식으로 이제 포매팅하는 거

참석자 2 17:46

그러면 시각화의 기능이랑 다른 기능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네네 그럼 바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참석자 2 18:08

영어에 깔리네.

참석자 2 18:32

네 괜찮으실까요?

참석자 1 18:35

네 이제 내려가시면

참석자 2 18:37

네

참석자 1 18:47

네 괜찮습니다. 이거 아무튼 그 용어 에이전트 1 2 3 이런 것만 이제 바꾸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네

참석자 1 18:57

사실 이런 리포트나 이런 걸 쓸 때 실제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용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는 게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 회사에 있을 때는 CTR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네 그게 클릭 스크롤 레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하면 문서가 나타나잖아요.

그 문서가 나타나는 걸 노출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그 문서를 클릭을 하면 노출분의 클릭에서 CTR이 1이 되거든요.

근데 노출이 두 번인데 클릭을 한 번만 했으면 0.5가 되고 그런 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CTR이 부서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부서는 이런 식으로 노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런 식으로 노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용어 같은 걸 정리를 잘 안 되고 하면 매번 회의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고요.

실제에서 실제 회의 때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일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참석자 1 19:58

그래서 그런 용어를 잘 정리를 하는 게 일단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제가 겪고 있는 건데 제가 이런 AI 서비스를 솔루션을 만들어주다 보면 현업이랑 이제 이야기를 해서 현업들한테 테스트 데이터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도메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잘 돌아가는지 파악하려면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들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막 만들려고 하면 용어가 팀마다 또 자기들이 또 쓰는 게 달라요.

공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이제 용어집을 만들고 이어 가지고 좀 용어가 다르게 해석되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제가 일하면서 그냥 느꼈던 거여서 혹시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2 20:43

네 감사합니다.

참석자 1 20:47

네 이거는 그럼 괜찮습니다.

참석자 2 20:49

네 이제 그러면은 프로젝트 기획서랑 요구사항 정의서를 보여주고 이제 이거는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어제까지 제출해야 했던 게 요구사항 정의서랑 프로젝트 기획서 그리고 WBS를 저희는 d 프로젝트 페이지로 대체해가지고 이 두 개의 사진을 제출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제출했습니다.

해당 이슈들이 있고 해당 이슈들이 어떤 분들이 배정이 됐고 그게 시작 날짜는 언제고 끝난 날짜는 언제인지 일단 저희가 대략 감을 잡아서 적어놨습니다.

참석자 1 21:26

혹시 이거 링크 좀 주실 수 있어요

참석자 2 21:29

그 프로젝트 링크 끝까요?

참석자 2 21:53

네 들렸습니다.

참석자 1 22:02

잠깐만요. 제가 로그인 좀 해볼게요. 네네네

참석자 1 22:44

혹시 저한테 여기 권한이 있나요?

참석자 1 23:27

저도 지금 개인 짓을 안 써가지고 일단 로그인을 해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제 메일도 혹시 추가를 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참석자 2 24:22

혹시 멘토님 이메일이 이게 맞을까요?

참석자 1 24:25

네 맞습니다.

참석자 2 24:27

네 어떻게 했어? 신규 일단은 추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참석자 1 24:34

잠시만요. 저도 한번 접속해 볼게요.

참석자 2 24:36

네네

참석자 2 24:40

이거구나.

참석자 3 25:00

6명인 거 보니까 된 거 같은데

참석자 1 25:09

프로젝트를 혹시 프로젝트 들어가면 지금 뭐가 있어야 되죠?

왜 아무것도 안 이슈만 보이지

참석자 2 25:19

지금 찾아 지금 제가 보니까 레퍼젝토리 권한이랑 프로젝트 권한이랑 뭔가 다른 것 같아서 지금 젡트에도 네 다시 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권한 어드민으로 드릴까요?

참석자 1 25:33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참석자 2 25:35

네네

참석자 1 27:04

이제 보입니다. 네 보이나요?

참석자 1 27:10

네네

참석자 2 27:11

네 네네

참석자 1 27:13

피그마는 지금 따로 만들고 있어요.

참석자 2 27:16

네네

참석자 1 27:17

어느 분이요?

참석자 2 27:19

피그마는 일단 저희가 화면 구현이 먼저 된 상태였어 가지고 그 화면 구현을 한 내용대로 피그마를 지금 디스크립션을 작성하긴 합니다.

참석자 1 27:28

따로 이거 지금 목업으로 그러면 UI를 만들어 보고 있는 거죠 피그마로 네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럼 손으로 일일이 만들고 있으세요.

참석자 2 27:38

손으로 만든다는 게 마우스 클릭하고 파이핑 하는 거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1 27:44

이거 피그마도 인호 님 잘 아시겠지만 툴 붙일 수 있거든요.
커서 같은 걸로

참석자 4 27:53

네 피그의 MCP 같은 거 말씀하.

참석자 1 27:55

네 그거 하면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꼭 가르쳐 주세요.

좀 다른 팀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퀄리티도 더 좋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도 많이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툴을 많이 쓰는 걸 목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좀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니까 한번 나중에 인호 님한테 한번 배워서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 20 지금 그러면 첫 주는 거의 이제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네

참석자 2 28:37

네네 네 그래서 어제가 첫 번째 산출물의 제출 기간이 마감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3개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참석자 1 28:52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석자 2 28:55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게 시장 조사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여
기서 데이터 전처리 후 네 작품을 네네.

뭐 예를 들어서 기술 문서 같은 경우는 분석 팀에서 사용할 만한 기술 문서를
좀 더 추가해 달라고 하였고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석자 1 29:16

그럼 시장 조사부터 한번 볼까요?

참석자 2 29:18

소프님 준비 되셨나요?

참석자 5 29:25

다 시작해서 잠시만요. 네 들리시죠.

참석자 1 29:35

잘 들립니다.

참석자 5 29:38

공유됐나요? 화면이 네 잘 보입니다. 일단 이거 제가 시장 조사한 거 아니고 저
도 부탁받은 거여서 일단 급하게 확인을 하긴 했는데 좀 완벽하지 않은 점은 좀
양해

참석자 1 29:51

괜찮습니다. 그냥 같이 보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컨트롤 플러스만 두 번 눌러주세요.

참석자 5 30:02

네 됐나요? 네 일단 목차는 이렇게 도입 배경 최신 기술 동향 주요 기업 도입 사례 경쟁사 분석 솔루션 예상 효과 이렇게 돼 있고요.

우선 도입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자체 구축을 목표로 저희가 가치 물증을 선택한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는 데 오늘 발표 본 적이 있고 기존 SAS 서비스는 기밀 유출 우려도 있고 커스터마이징의 한계 그리고 인프라 미적합 등의 이슈가 있어서 24년 이후로부터 실제 기업의 언어 대부분인 자체 구축을 선호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 자체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얻는 효과는 아무튼 이런 도

참석자 1 31:06

잠시만요. 잠깐만 위에 위에 장 다시 좀 놔둬줘. 도입 배경에 지금 외부 사스 도구 활용의 한계라고 돼 있는데 우리들도 결과적으로 외부 사스 도구거든요. 그래서

참석자 5 31:24

그거는 마지막에 나중에 보안 계획 강화 계획으로 마지막에 저희 온프레미스 환경이나

참석자 1 31:32

그런 걸로 변경하고 좋아요. 좋아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사스 한계가 있고 이번에는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 피지빌리티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걸 사스에서 소량의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비지빌리티가 나중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걸로 온프레미스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 우리들의 모델도 만들고 사내 환경을 개발 환경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를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1 32:11

여기에 레그 기반 문서 검색 기술 부상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우리가 여기서 또 에이전트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레그 기반 검색 기술이 부상을 했고 도입률이 이렇게 했는데 이랬다.

하지만 환각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완전하게 해결은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에이전트 같은 것을 도입을 하게 됐고 최근에 에이전트는 이렇게 하고 올백이나 이런 기술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환각도 많이 줄이고 틀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랩핑을 해가지고 쓰니까 생산성도 더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하나 더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건 너무 좋아요. 이 직원 일평균 3.6시간 정보 검색 이런 거 진짜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한 자료가 어디에 참고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크레디블한 레퍼런스가 있으면 좋습니다.

참석자 1 33:08

그래서 그런 거 한두 개 정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트너의 리포트에 따르면 맥킨지의 리포트에 따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넣어주시면 좀 더 신뢰성이 생기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석자 5 33:26

이게 최신 기술 동향이 어떤 걸 나타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랭 체인으로 LM 프레임워크 쪽은 랭체인 아마 인덱스

참석자 1 33:40

몇 시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하고 계시고 일단 이 최신 기술 동향은 시장 조사에는 크게 필요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최신 이제 사내 검색 문서 트렌드 동향 사내 검색 시스템 동향 이런 걸로 가야지 기술 쪽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

참석자 5 34:10

넘어갈까요?

참석자 5 34:16

주요 기업 도입 사례는 노션 AI 이 슬랙 GPT 슬랙 AI 그리고 구글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도 있고 기업들의 특징들은 노션은 사내 문서 QnA 기능 참시만요.

a랑 다 사스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고 설치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한만큼 돈을 내는 구조인데 여기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스터마이징이 어렵다거나 보안 정책이나 그런 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 온프레미스 모델을 사용하려고

참석자 1 35:03

클릭합니다.

참석자 1 35:10

어떤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장이 그러니까 노선이랑 슬랙이랑 이게 지금 경쟁 제품이라는 건 아니죠

참석자 4 35:22

경쟁전

참석자 2 35:24

꿈이 있습니다.

참석자 1 35:25

잠시만요. 주변에

참석자 5 35:30

다른 비슷한 모델들이 이렇게 도입했다 그런 걸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참석자 1 35:34

잠깐만요.

참석자 1 35:54

일단은 일단 보류. 일단 알겠습니다.

참석자 2 36:06

혜주 님이 해당 조사를 해 주실 때 사내 문서 검색 애플리케이션이 도입된 사례로만 조사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석자 1 36:16

사례로 사실 저희들이 비교해야 될 경쟁사는 이런 데거든요.

지금 제가 잠깐 찾아서 그냥 보내는 건데 네 사실 이것도 다 구축을 해 주는 거예요.

거의

참석자 1 36:43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참석자 2 36:45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석자 1 37:00

저기들도 막 유저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저런 쪽이랑 이제 아마 이 경쟁 그게 될 건데 아니면

참석자 1 37:19

인도계를 찾아볼까? 잠깐만요.

참석자 1 38:05

네네네.

참석자 1 38:14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은

참석자 1 38:37

잠깐만요. 저도 한 몇 개 찾아볼게요.

참석자 2 38:42

네 감사합니다.

참석자 1 38:48

사실 지금 이런 거는 SI적 업무여가지고 이런 우리 회사의 사내 문서 같은 거 이렇게 모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회사의 데이터 DT 팀 같은 데서 이제 개발자들이 사내 문서들 모아가지고 직접 하거나 아니면 외부 업체에 문의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참석자 6 39:36

내가 보니까 반장자리도 그래 반장은 잘하는 놈이 잘한다.

비록 이만큼 야구에 정통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참석자 1 39:47

근데 이 SKCNC 거 한번 열어보시면 피쳐 같은 거 적혀 있잖아요.

지금 승원 님 한번 SK CNC 이거 한번 눌러보실래요?

잠시만요.

참석자 4 40:01

혹시 디스코드에 있는 건 디스코드에 있나요?

참석자 1 40:04

여기 채팅방에 있어요. 제가 공유한 링크 태준 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조사는 좋은데 제가 일단 간략하게 뭐 한두 개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기서 좀 내려가시면 피쳐가 있어요.

이 회사가 SI 적인 업무를 하는 거예요. SI라는 거는 이제 구축을 해 주는 팀들이 거든요.

여기는 다른 회사들에서 이런 AI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우리 회사 직원들도 많이 없고 우리 회사 직원들은 이런 업무를 한다고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아이디어는 있기 때문에 이걸 해줄 팀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구축을 해 주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차를 보면 비정형 데이터 자산화 파이프라인 구축 지원 보시면 DB 전처리하는 거 이런 건 다 비슷하죠.

두 번째 보시면 레그 구조 기반 검색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피처만 봤을 때 그러니까 태수 님이 지금 말씀 잘해주셨어요.

자료 검색이 너무 안 되는 것도 맞고 자료가 비공개다.

참석자 1 41:12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SK 주식회사 CNC 이런 데를 보면 피처들을 참고할 수 있는데 여기는 레그 기반 구조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에이전트 기반으로 해서 그런 답변의 정확성도 더 올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경쟁 우위가 되는 거거든요.

참석자 2 41:28

네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1 41:30

그래서 비공개가 돼 있는 회사들 중에서 이런 SI적인 회사들 중에서 지금 LG도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회사들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공개는 안 하지만 어떤 기술을 쓰는지 올려놔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비교를 해서 비교 우위를 경쟁 우위를 좀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레그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국내 예로 한번 찾아보세요.

참석자 2 41:59

네 네 감사합니다.

참석자 1 42:03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시 또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거를 여기에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 및 장단점 그래서 정확도와 보안성 이런 것들은 저런 회사들이랑 비교하면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안 적어도 되고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이것도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다국어 및 도메인 이것도 좀 그렇고 온프레미스 저런 SI 업체들이 온프레미스로 거의 해줘요.

그래서 저런 회사는 실제 개발팀들이 야 우리 이제 딱 돈 들어왔어 개발 시작하자 하면 그 회사에 가서 상주하면서 하거든요.

참석자 1 42:46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온프레미스랑 클라우드 옵션도 좀 애매하긴 하고 우리는 뭘로 가야 되냐면 최신 기술 그러니까 에이전트 AI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지금 현재 가장 최전선에 있는 AI 기술들 툴 콜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기존에 그냥 SI 업체에서 하던 그런 단순 레그랑 다르게 나이브한 레그 이런 거랑 다르게 우리들은 자체 답변도 이렇게 검증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석자 2 43:20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1 43:22

그다음 장 한번 가서

참석자 5 43:25

이거네 티수 님이 44

참석자 1 43:27

네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 4분면을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x축 y축이 최신 기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그러면 오른쪽 맨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다음에 밑에는 이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가격 솔직히 이런 대기업적인 이런 SI 업체는 이런 구축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우리는 싸다 이런 식으로도 좀 어필을 하시면 XY 축이 다 좋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초보 시장 도입하는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가져가려면 가격적인 거나 기술적인 걸로 가져가야 돼서 이런 부분이 네 네 맞습니다.

가격을 그냥 뭐 저기보다 무조건 싸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네 잘하셨어요 네 그다음 자 갈까요? 네 그다음 내 밑에 장도 보여주세요.

참석자 5 44:28

그는 사스 방식이랑 자체 구축 비교하신 페이지인데

참석자 7 44:38

균요. 그

참석자 1 44:39

사스의 자체 구축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를 하면 이거는 경쟁 쪽은 아니고

참석자 7 44:55

69-19단 체제에서 4

참석자 1 44:57

이 장도 빼도 될 것 같아

참석자 7 44:59

같이 하시는 거죠.

참석자 1 45:00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아마 공부가 되셨을 거예요.

이런 사스랑 자체 구축 온프레미스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회사도 이 IBM도 사실 AWS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에 비해서 AI 쪽은 후발 주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우위를 들고 가기 위해서는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는 온프레미스를 안 해요.

무조건 클라우드만 팔거든요. 근데 우리는 온프레미스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경쟁 우위를 들고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온프레미스가 사실 진짜 노가다 작업이에요.

노가다 작업 직접 가가지고 상주도 해야 되고 거기에 가가지고 또 일도 해줘야 되고 거기에 환경에 맞게 딱 구축도 해줘야 되고 막 그런 작업들이 설치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참석자 1 45:51

근데 클라우드를 자기들이 공부하고 자기들이 그냥 써야 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교육만 해놓으면 그냥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현업의 입장으로 그냥 그냥 지식을 드리는 건데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은 빠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참석자 5 46:09

다음 장은 저희 예상 효과 효과 하는 질문 아까 보셨듯이 일 평균 3.6시간 검색 시간 그런 거를 저희 자체 그래서 저희 내부 문서로 해가지고 그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참석자 7 46:22

회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석자 5 46:24

그 모델을 사용해서 학습해가지고 핵심 요약하는 부분이나 중요 포인트를 빠르게 파악하게 할 수 있고 대표 FAQ 같은 거는 회사마다 다른데 그 환경마다 다른데 저희 회사 자체 거를 해가지고 저희 거 위주로 해가지고 해서 좀 저희 회사 기준으로 그 질문과 답변을 설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시간이 줄고 찾는 게 빠르고 정확하다 보니까 업무 생산성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직원분들도 직원들도 더 편하게 찾으면서 만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1 47:00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말했던 레퍼런스가 고객사 됩니다.

일평균 3.6시간이 어디서 나는 자료인지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에이전트가 많잖아요. 코드 분석이 몇 시간 단축이 되고 사내 내부 검색

시간에 몇 시간 단축되고 그다음에 리포트 우리가 에이전트가 3개잖아요.
그 3개별로 다 찾아가지고 그런 걸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효과 중에 그런 것도 있겠죠.
다른 회사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좀 기술적으로 이제 느린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최신 AI를 반영함으로써 회사의 이제 직원들이 최신 AI에 대한 이런 기술의 이
해도도 생기고 우리가 미리 구축을 해봤던 경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추
후에 새로운 이런 기술이 들어왔을 때 좀 더 적용시키기 편한 구조로 잘 짜져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자 1 48:03

그리고 이제 이거 하면서 좀 생각난 건데 우리 에이전트 AI 워크플로우에 폴백
같은 것도 좀 기능을 넣을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답변 결과의 점수가 신뢰도가 0.7 이상이었을 때 결과물을 내뱉는
다 아니면 다시 익스프레이션을 준다 이런 것도 넣어야 되거든요.
그냥 답을 답을 내뱉는 게 아니고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혹시 나중에 알고 계시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2 48:42

혹시 그거에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어제 인호 님이랑 저희 팀이 다 같이 찾아보면서 인호 님께서 리액트
에이전트라는 기능을 찾아주셨어요.
랜 그래프 공식 문서에서 네네네 네네 혹시 그거를 말씀해 주신 게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혹시 그걸 말씀하신 건가

참석자 1 49:03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구조고요. 네 랭그래프에서 이제 에이전트를 호출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에이트 에이전트 리액트라는 체인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LLM의 성능에 그냥 톨 콜링 성능에 그냥 기대어 가지고 톨을 리스트로 묶어가지고 그냥 톨만 제공을 해주면 LLM이 알아서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일 간단하고 제일 구현하기 편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만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고 커스터마이징이 좀 힘들어요.

그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라는 구조가 있는데 그냥 그래프라는 구조는 우리가 커스터마이징도 이제 크리에이터 리프트 에이전트보다는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각각의 그래프마다 어떤 상태였고 어떤 것들을 반환했고 이런 로깅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테이트 그래프라고 있어요.

이노 님은 아실 건데 그 스테이트 그래프 구조는 딕셔너리 형태로 자꾸 스테이트를 보내주거든요.

참석자 1 50:12

그래서 결과를 자꾸 추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트 그래프 형식으로 짜면 짜도 방금 말했던 그런 리액트 구조처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좀 더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편하게 하기 위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런 기능들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참석자 2 50:34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5 50:38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네 그다음 페이지도 예상 효과 이제 이 자체 개발로서의 예상 효과로 외부 사스 계속 사용하면 사용료가 매달 발생할 텐데 그거

를 절감

참석자 1 50:51

좋다 이런 건 좋다. 이거는 아까 우리 4분위에 사내 문서들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서비스들 아까 노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또 따로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사내 문서들을 다시 다 입력을 해야 되고 따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축 같은 것도 돈이 많이 들고 회사에 구축을 하려면 AI 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구독 서비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안 쪽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참석자 6 51:24

제주의 사랑으로

참석자 1 51:26

실제적으로 자체 개발해 주는 팀과 비교했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기술적 우위를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

두 가지의 효과를 4분 뒤에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 밑에는 그냥 외부 사스인데 노션이나 이런 툴 그냥 사내 문서들을 이제 여러 가지 뿌려져는 있지만 사실 그 노션 안에 우리 모든 데이터를 다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검색 시스템은 맞지만 뿌려져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모을 수가 없다.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개발에 인건비가 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스 서비스도 있으면 좋고 아까 말했던 CNC 나 LG 같은 구축해 주는 그런 SI 업체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고 그래서 이런 자체 개발이랑 경쟁 우위 비교 우위 같은 그런 장표를 하나씩 하나씩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좋네요.

참석자 5 52:33

다음 예상 효과는 보안성인데 아무래도 사스도 외부 환경에 하는 거다 보니까 자체 레미스 환경에 더 보완적으로 좀 더 우수한 성능을 낼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저희한테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게 좀 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참석자 1 53:03

여기도 예상 효과가 이거 예상 효과가 정확하게 좀 잘 구분을 해가지고 제목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회사 자체에서 이거를 다 만든 후에 이걸 써봤을 때 예상 효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회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경쟁 우위라든지 그런 것들 카테고리들을 정확하게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참석자 5 53:28

그다음 마지막으로 결론인데 저희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저희 만드는 게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저희 앞으로 해야 되는 지금은 위즈 PT 오픈 API를 빌려 쓰지만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저희 자체 그걸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거와 저희한테 맞춰서 좀 더 파인팅 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걸 적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참석자 1 54:01

네 여기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네요. 가트 너버 리포트에 따르면 2028년까지 회사의 모든 톨이 3분의 1 정도가 에이전트 AI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미리 해보는 걸로 일단 그런 사회 트렌드도 따라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면 실질적으로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절약됐다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는 이 스텝은 미리 들어가기 전에 사내 문서 개발하는 걸 미리 들어가기 전에 피지빌리티를 체크하는 하나의 그런 PoC 프로프 오브 컨셉 용도로 이게 만약에 잘 작동을 하고 한다면 추후에는 이런 온프레미스나 이런 걸로 확장한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회사에서는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자 5 55:01

여기까지 PDF 자료는 끝났고 갑자기 하게 돼서 많이 서두웠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자 1 55:07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시장 조사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개발을 하러 왔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는 게 좀 헛갈리고 이런데 여러 가지 뭐 회사들을 다 가실 수도 있겠지만 스타트업 같은 데 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룰 중에 po라고 있어요.

프로덕트 오너라는 직책이 있는데 이 자기의 프로덕트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 개발자들을 또 뽑는 문화들이 있어요.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해야 돼라고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혹시나 그렇게 조금이라도 생각이 드는 거 보면 제품을 알아야 그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가 좀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기업 같은 데는 사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개발만 해 그냥 이렇게만 될 수도 있거든요.

참석자 1 55:57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제품을 론칭을 했는데 어떤 기술 서비스를 론칭을 했는데 별로 시장 반응은 안 좋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 있을 때도 약간 그런 것들로 이제 기획자들이랑 토론 원래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획자분들이 또 그런 걸 또 좋아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케바케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참석자 7 56:23

네 맞아 공장 적게 들었어 알겠습니다. 조금 부장의 이점은 상대팀 선수들과 행동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석자 1 56:32

그러면 지금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한 9시 20분까지 쉬시고 이제 나머지 추후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2 56:42

예 알겠습니다.

참석자 1 56:43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2 1:22:47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데이터로는 이거는 멘토님한테 피드백을 좀 많이 받고 싶은데 그 시계의 데이터를 저희가 추가 수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시계열 데이터가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가입자 고객 시계열 데이터랑 통신사 서비스 그리고 통신사에서 했던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트래픽 양 같

은 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 정보통신기술부였다 정확한 사이트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통신 이 모여져 있는 데이터를 셋을 찾아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슈가 있었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라든지 아니면 롤 챔스 결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릴 법한 트래픽 이슈 같은 걸 찾아서 찾아봤는데 오히려 트래픽이 줄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그런 큰 경기 같은 거는 핸드폰으로 안 보고 컴퓨터를 본다는 생각을 저희가 고려하지 못했더라고요.

참석자 2 1:23:53

그래서 찾은 게 무선 트래픽 데이터는 있으니 유선 트래픽 데이터 있으면은 이거를 합쳐가지고 어떤 이슈는 유선 픽 이슈를 증가시키는 이슈고 또 어떤 이슈는 무선과 유선 둘 다 증가시키는 이슈가 되겠다라고 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유선 트래픽 데이터를 찾지 못해가지고 일단 생각을 해 놓은 게 무선 서비스 그러니까 핸드폰 가입자 증감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로 정해가지고

참석자 2 1:24:28

이런 식으로 데이터 컬럼 셋을 만들어 봤습니다.

참석자 1 1:24:36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휴대폰 가입자를 예측을 하는 건가요?

참석자 2 1:24:44

가입자 예측이라기보다는 가입자가 줄고 있으니 예를 들어서 이번에 SK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있어서 가입자가 주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이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인사이트가 얻는 용도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석자 1 1:25:00

그거 좋네요. 그럼 SK텔레콤 유심 사태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또 인호 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새로운 핸드폰 새로운 모바일이 나오거나 그런 것도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참석자 2 1:25:17

네 그리고 반대로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멘토님이 해 주신 조언이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방탄소년단 서버라는 게 있다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요.

카카오톡 같은 데에서 신곡 같은 게 나오면 그전에 미리 먼저 서버를 10개 늘려 놓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대비하는 방안 같은 것도 회사 내에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에이전트 생각했을 때

참석자 1 1:25:43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쓴다고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참석자 2 1:25:49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저희는 일단은 시계열 데이터로 증가함을 일단은 이슈를 예측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날짜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확정된 이슈가 만약에 미래의 날짜에 있다면은 그럼 그 이슈에 맞춰서 증감을 예측하고 증가가 나왔다.

그러면은 추가될 분석 결과가 추가가 될 미래가 나왔으니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할 거고 반대로 우리 회사에 이 이슈가 있는데 고객이 감소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미 기존 고객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방안을 생각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 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석자 1 1:26:39

이거 예측할 때 네 비정형 데이터도 쓰실 거죠? 네네 그러면 뭐 뉴스 이런 것도 쓰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피쳐들 어떤 거 어떤 거 쓰실 예정이에요?

참석자 2 1:26:56

일단은 지금까지 준비된 거는 통신사별 총 가입자 수랑 그리고 증감 인원 그리고 증감률 이런 것까지 이렇게만 준비를 해놨는데 저희는 앞으로 이슈라든지 아니면 뉴스라든지 그런 특정 키워드 컬럼 같은 걸 좀 더 몇 개 추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석자 1 1:27:18

그러면 네네. 나중에 예측을 할 때는 네 미래 걸 예측할 때 미래의 뉴스 기사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참석자 2 1:27:32

네 그래도 그 부분이 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래 뉴스를 예측한다면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애기니까 그거는 살짝 어불성설이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모델 새로운 모델 출시라든지 아니면은 통신사 고객들이 몰릴 만한 모바일 이벤트라든지 그런 게 일정이 있으면 일단 그런 일정들로 일단 이슈 컬럼을 생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석자 1 1:28:08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들어 보지 잠시만요. 네

참석자 6 1:29:02

그 영상 보지 말고 숫자 보라고 그때까지 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즌 시작 되면 원전 기록원이라는 게 있어 너는 그거 못 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숫자로 봐

참석자 6 1:29:21

근데 여기 이름이 다 지워져 있는데 숫자만 숫자만 보라고

참석자 1 1:29:29

그러면 이 비정형 데이터로는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썼던 논문에서는 네 영화 시놉시스만을 가지고 이 영화가 대박 날지 안 날지를 맞추는 모델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그다음에 어떤 감독이 촬영을 했고 어떤 배우가 나온다고 하고 어떤 시나리오라고 대충만 알아도 예고편만 봐도 이거 대박 나겠더라고 알잖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쉬운 문제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 거는 결과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만들자 그냥 시놉시스만을 가지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었었던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뉴스가 있다고 하면 이건 쉬운 문제잖아요.

누구나 대략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아이폰이 나온다 당연히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석자 1 1:30:38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뉴스 피처를 시계열 형태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사 수 그러니까 뉴스에 비정형 데이터를 쓰는 거 말고 최근 1일 3일 7일 동안의 기사 수라든지 그다음에 카테고리별 기사 비율이라든지 당연히

그다음에 tfidf 같은 거 사용해서 어떤 키워드의 출연 빈도라든지 이런 수치로 변환을 해가지고 쓰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

참석자 3 1:31:18

가운데 제도 안 돼요. 잘생겼어요.

참석자 2 1:31:20

네 감사합니다.

참석자 3 1:31:22

아니 아 유니폼 판매량이 4위예요. 주전 선수도 아닌데

참석자 2 1:31:26

저희가 계속 그 고민을 하면서 풀기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이슈 부분이었는데 이슈 중에서 특히 뉴스 쪽 테미리를 쓰면 된다고는 하지만 계속 멘토님도 아시겠지만 뉴스라는 거는 현재 상황이나 미래 예측 같은 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저희가 미래를 예측 예언을 할 수 있는 피쳐는 아니다 보니까

참석자 1 1:31:51

그렇죠. 네

참석자 3 1:31:53

방출하면

참석자 1 1:31:54

그래서 사실 이 뉴스라는 거는 좀 미래의 뉴스가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순간에 쓸 수 있는 정보가 진짜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사실 이게 이게 피쳐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술이거든요. 네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을 많이 썼을 때 사용하던 기술인데 그때는 이렇게 케글 같은 대회를 하면 데이터를 주잖아요.

그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에서 우리가 최대한 어큐레이스가 높게 아니면 그런 평가 지표들이 높게 나오는 게 대회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엄청 여러 가지 만들 거예요.

a 컬럼 b 컬럼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c 컬럼을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츠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피쳐 엔지니어링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외부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기술이고요.

참석자 1 1:32:55

그래서 최대한 수치 데이터로 과거 시점에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참석자 7 1:33:06

3년 차였던 박종철 선수

참석자 1 1:33:08

지금 있는 것도 증감률이 돼 있는데 그 증감률도 여러 가지로 또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7일간 14일간 이동 평균 그래프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요.

이걸로 그다음에 최근 3일 동안의 선형 기울기 이런 것들도 추가할 수 있고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도 그래프 분석을 하잖아요.

물론 그게 다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그 그래프만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또 요금제도 있겠네요.

요금제 경쟁사 요금제나 최근 요금제나 통신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과거 피처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최근 3일간 7일간 뉴스 기사 개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키워드 최근의 키워드 이런 걸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2 1:34:13

네 감사합니다.

참석자 2 1:34:19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이거는 인호 님이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저희 이 프로젝트가 레퍼지토리 일단은 이호 님이 기본적인 초안을 짜주셨는데 랭 그래프의 초안을 짜주셨고 그리고 각 에이전트에서 사용하는 툴들을 일단 선언만 해놓으셨어요.

안에 기능 같은 것들이랑 물론 기능은 저희가 구현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혹시 한번 그거 보여드려도 될까요?

인호 님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참석자 7 1:34:55

2차 드래프트 보호선수 명단입니다. 작성됐습니다.

그래 준비는 잘했어. 네 뭐 문제없이 준비될 것 같습니다.

참석자 4 1:35:06

보이시나요?

참석자 7 1:35:08

네 보입니다. 점은

참석자 6 1:35:10

일을 요란하게 하고

참석자 4 1:35:11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잠시만요. 이게 어느 부분이었지 아까 그 말했던 크리에이티브 리액트 에이전트 부분으로

참석자 2 1:35:23

그것 때문이 아니라

참석자 4 1:35:24

제가 에이전트 각각 일단 초안을 만들어 놓고 네. 따로 분기하는 것도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 일단 쓰긴 했는데 네.

참석자 6 1:35:43

단장 일하는 방식

참석자 4 1:35:47

저 에이전트가 지금 선언만 해놓고 안 쓰고 있구나.

참석자 1 1:35:53

지금 그 툴들 다 모아놔야죠.

참석자 4 1:35:55

네 지금 툴들 따로 안에 내용은 안 적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만

참석자 1 1:36:03

네네. 잘하셨습니다. 혹시 크리에이터 리 에이전트 함수 선언한 부분 한번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참석자 4 1:36:08

지금 이게 제대로 되는지는 확인을 아직 잘 안 해가지고

참석자 1 1:36:12

괜찮습니다. 이게 메인 모델인 거죠.

참석자 4 1:36:17

이게 지금 뭐냐 저희 데이터 모델 불러오고 잠깐 잠시만요.

이게 예 모델 불러오고 예측 위주로 진행되는 에이전트 부분입니다.

참석자 1 1:36:34

지금 이게 이 시스템 메시지가 여기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툴들에 디스크립션을 달아놔야죠.

네 그래서 그 툴들을 설명을 약간 해 주시면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이런 툴들을 어떻게 호출하면 좋다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좋고 그리고 프 로포티 이런 것도 해주시면 좋아요.

항상 너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럴 때는 네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그걸 툴로 해결하려고 해라 그런 식으로 해 주시는 것.

유승훈 선수는 작년에 패전쪽으로 활약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강

참석자 6 1:37:08

하지만 자도 처리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명단에 포함시켜

참석자 1 1:37:12

이 분들을

참석자 6 1:37:13

전력 컨설팅을 보여드리면

참석자 1 1:37:17

잠시만요.

참석자 6 1:37:21

그 현장 상이랑 말이 다르네. 현장 상식이 아니라 현장 생각이랑 다른 거죠.
그리고 감독님 아니면 회의 때는 반발 결정하지 맙시다.
아무리 상대가 없지 근데요.

참석자 7 1:37:36

누구십니까? 전력 분석팀 데이터 파트입니다. 반장 주세요.

참석자 3 1:37:42

배경수 씨고요. 야구 칼럼 사이즈에서

참석자 1 1:37:54

예를 들면 제가 이 채팅창에 잠깐 공유를 드릴게요.

지금 채팅창에 공유를 드렸거든요. 이게 예전에 제가 작업했던 컴퓨트 중에 하나인데 위에 마크 다운으로 하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결과를 예쁘게 좀 받아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주고 HTML도 이제 받을 때는 항상 이거 태그를 걸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항상 이게 때때로 이게 니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툴들이 뮤지컬한 인포메이션이 없을 수도 있다.

첫 번째 프라이에서 그러니까 뉴슈드 오 베이스 파이어 뷰 디퍼런트 어프로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추가하시면 좋고 이거는 제가 작은 모델로 실험을 했던 거여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좀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좀 좋은 모델이니까 아마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1 1:39:04

지금 프롬프트 포맷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툴을 호출하는 것보다 약간 어떤 분석을 해주는 그런 테스크처럼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성능이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인호 님 이런 거 빠르게 하실 수 있으니까 크리에이트 리액트 에이전트를 한번 해보시고 케이 그래프 한번 짜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4 1:39:28

근데 업무 에이전트별로 업무 분담을 하기에는 리액트 에이전트로 일단 만들어 놓고 팀원분들한테 툴 쪽을 맡기려고 했었는데 그게 리트 에이전트가 툴 쪽만 튜닝하면은 저희가 구현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이게 업무 분담하기에도 쉬워 보여서 일단 리액트 에이전트 쪽으로 짜긴 했는데 네 하세요.

스테이트 그래프로는 업무 분담을 하기 쉬울까요?

그쪽

참석자 1 1:40:02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툴들을 여러 다른 분들한테 짜라고 하고요.

네 수를 배포해서 API로 주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디터브의 툴 코드들은 다 따로 있는 거고 흐름에서는 API만 받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석자 4 1:40:25

제가 지금 랭 그래프 스튜디오를 따로 만져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API로 배포하면 되는 겁니까?

참석자 1 1:40:32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패스트 API 같은 걸로 배포해도 되고요.

그거를 그냥 호출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4 1:40:42

이것도 따로 도커로 만들어 가지고 AWS에서 배포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참석자 1 1:40:48

그렇게 하셔도 좋고 좀 편하게 하시려면 그냥 c2에 그냥 로커로 그냥 이 도커로 계산해도 상관없겠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석자 4 1:40:59

지금 밑에 터미널 쪽에 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까 잠깐 랭 그래프 스튜디오를 CLI로 스튜디오 형태로 볼 수 있길래 그거 테스트해 보고 있었습니다.

참석자 1 1:41:16

주전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프로덕트 레벨을 가면 크레이트레이트전트는 이제 그 안에서 모델로 해결하지만 그 스테이트 그래프를 써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모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어. 아무튼 툴 쪽은 최대한 간결해야 된다.

그리고 툴을 만들어라고 다른 사람에게 시킨다. 툴을 잘 만들고 그 툴이 잘 작동하는지를 체크를 해 주시고 배포해라고 하고 나는 나는 당연히 이 코드 안에서는 흐름만 있어야 돼 흐름만 막 지저분하게 툴 안에서 동작하는 기능들이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코드가 깔끔해지겠죠

참석자 4 1:42:04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4 1:42:09

에이전트별로 툴 코드를 좀 분리를 해야 될까요?

참석자 1 1:42:16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참석자 4 1:42:20

에이전트별로 쓰는 툴들이 일단 여기는 한 코드에 다 적혀 있긴 한데 이것을 에

이전트별로 쓰는 툴을 코드별로 분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참석자 1 1:42:33

지금처럼 관리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냥 툴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API만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러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추후에 만약에 2억 단위로 가면 그걸 좀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3개밖에 없잖아요. API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테크 기업 큰 기업을 가면 진짜 이런 게 막 10만 개 100만 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 툴도 팀 단위로 묶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참석자 4 1:43:06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리액트 에이전트로 구현을 해보고 그다음에 스테이트 그래프로 해보면 되는 거죠.

참석자 1 1:43:12

저는 개인적으로 인호 님이 다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리케이 저렇게도 해보고 스테이드 두 개 다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썰 풀 게 많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발표에 좀 녹여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크리에이트 레이스 에이전트로 시작을 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커스터마이즈도 힘들고 사실 모델 성능에 아예 완전 의존을 하는 거하고 실제 프로젝트 레벨에서는 그러면 커스터마이즈를 하고 흐름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거다. 그래서 저는 흐름 엔지니어의 룰로 이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즈 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스테이트 그래프를 짰고 상태들을 그림 스테이트를 다 볼 수가 있잖아

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로깅을 시켜가지고 이걸 그 로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로깅화를 시키고 그런 것들도 포스 벨 같은 SQL에 다 담았다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죠.

참석자 4 1:43:55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1 1:44:01

이거 뭐예요? 이게 그거 원텍스 폰인가

참석자 4 1:44:04

네 맞습니다.

참석자 1 1:44:05

그냥 이거 쪽 쓰고 있어요. 이제

참석자 4 1:44:07

이거 그냥 일단 안에 안 하고 전부 쓸 때까지는 이거 쓸

참석자 1 1:44:12

이거 몇 번 이거 이거 지금 얼마나 끊어놨어요?

참석자 7 1:44:16

몇 가지나 찾아

참석자 4 1:44:17

15달러짜리 끊어가지고

참석자 7 1:44:21

제 생각에

참석자 2 1:44:22

지금 윈드 서프

참석자 1 1:44:26

내가 안 써봐 가지고 이거는 이거 좀 소개 좀 해줘 봐요.

궁금한 거 여기 사람들도 팀원들한테도 좀 좀 소개도 좀 해주고

참석자 4 1:44:39

지금 저는 프로 끊어가지고 총 500 크레딧을 봤는데 현재 300 크레딧 이번 달에 써가지고 196 크레딧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로 쓰는 LLL 모델이 여기서는 제미나이 2.5%나 클로드 3 7 소의 핑킹 무대를 많이 쓰긴 하는데 네 이게 윈드 서프 쪽에서 무료 모델을 하나 swe1이라는 거 한 저번 주쯤에 배포를 시작을 해가지고

참석자 1 1:45:12

이거는 우리들도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참석자 4 1:45:15

이거는 무료 유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는 무료입니다.

참석자 1 1:45:19

다른 분들도 이거 지금 잘 듣고 이거 쓰세요.

참석자 4 1:45:23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1 1:45:24

네 이것들을 다 경험을 해보셔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 인호 님한테 설명 한번 듣고 나중에 이거 한번 다 써보세요.

무료도 있으니까

참석자 4 1:45:35

네 네

참석자 1 1:45:37

네 이놈 말이

참석자 4 1:45:39

네 프로 결제하면은 swe1 모델까지는 쓸 수 있고요.

써보니까 애 sw21 기본 모델이 클로드 3.5 정도 성능 나오는

참석자 7 1:45:52

감독이 주력을 다하게만 해 주시면

참석자 4 1:45:55

자기들이 배포한 모델이라고 일단 무료로 하고 있긴 한데

참석자 1 1:45:59

블러드 포 들어오면 그것도 들어오겠네.

참석자 7 1:46:07

절반만 따

참석자 4 1:46:08

지금 이거 추천 LLM들이긴 한데 프로바이더별로 구글 다른 그록이나 싱크 다 선택 가능하고요.

오픈 AI 이거는 지금 오픈 AI 쪽에 인수됐다고 프로머로 지금 0.25배

참석자 1 1:46:24

하고 엄청 싸구나. 그러면 이거 뭐 모드는 뭐뭐 있어요?

커서 같이

참석자 4 1:46:34

모드는 일단은 애가 저희 허락을 최소한으로 받고 에이전트 지고리는 라이트 모드하고

참석자 7 1:46:42

정치는 잘하는데 야

참석자 4 1:46:43

이거는 저희 일단 허락 안 받고 코드 수정부터 한 다음에 엑셉트 디플라인 하는 방식이거든요.

참석자 1 1:46:50

컷의 에이전트 방신소는

참석자 4 1:46:52

그리고 이거 챗으로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코드 쪽만 읽거나 아니면 제가 따로 준 이런 식으로 코드 줘가지고 그런 코드들만 읽고 대답하고 그냥 여기서 코드 쪽에 어플라이 할 건지 버튼 누르면은 그런 식으로 뭔가 기본적인 기능들만 허용되게 하는 게 모드인데

참석자 1 1:47:21

지금 뭐 툴은 따로 붙인 거 있어요.

참석자 4 1:47:24

지금 MCP 서버로 지금 이게 데스크 탑이라 제가 여기서 코딩을 많이 하지는 않았가지고 지금 이거는 심심풀이 삼아서 해본 절차적 생각 툴 하나 붙여놨는데 그게 제일 유명합니까?

뭐냐 제가 노트북에 설치한 모듈은 플레이 라이트였던가 저희 애가 웹 서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MCP 도구하고 그다음에 피그마 툴은 붙여봤다가 애가 저희 피그마 읽으면은 인풋 크로프트 아웃 나가지고 이게 요소들이 많으면은 오류 나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뺐고 그다음에 박스 그 방법이 있기는 쓸 겁니다.

포스트 그리 MCP 하나 붙여서 사용 중이긴 했습니다.

저희 RDB에 연결해 놓고 쓰는 방식으로 해서

참석자 1 1:48:32

잘하셨네. 아무튼 뭐 다른 분들한테도 이거 다 가르쳐 주시고 쓰게 하세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이걸 해야 이제 되는 부분이어서 나중에는 제가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코드 자체가 이제 접근성이 편해지니까 글썽요.

이제 물론 다 손 코드도 다 해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코딩 테스트로 끝나는 문제들이 면접 볼 때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 볼 때 이제 그게 없어지고 이제 코딩 테스트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냥 아예 프로젝트를 만들어 오게 하는 시험을 줄 수도 있다는 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바이브 코딩으로 끝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다 짤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시간 안에 그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분석력을 더 앞으로는 볼 수도 있다더라고요.

참석자 1 1:49:26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쓰시고 많이 분석을 해보시고 하다 보면 이 커서나 윈드서퍼나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만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나만이 좀 보기 편하게 짤 수 있는 폴더 구조로 짜는 그런 프로포즈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나중에는 코딩 테스트나 아니면 프로젝트성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딩 테스트는 좋겠지만 추후에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자 4 1:50:02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윈드 서프 만에 추가적인 기능으로 프리뷰하고 디플로이가 있긴 한데 디플로이는 써보니까 저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작성된 부분에 한해서 웹에 배포를 애가 해주더라고요.

프로젝트 프로 유저 같은 경우에는 5개까지 자사 뭐냐 자사랑 제휴한 쪽에 클라우드 쪽이랑 협업을 했는지 디플로이 하면은 저희 거 코드를 배포에 알맞게 정

리해 준 다음에 배포해 주는 식으로 애가 자동 배포 서비스를 하나 하고 있고

참석자 1 1:50:48

근데 배포하려면 인증 정보들이나 이런 거는 미리 다 입력을 해 놔야 돼요.

참석자 4 1:50:52

이거 그거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애가 알아서 적어준 다음에 일단 배포를 해놓고 배포한 다음에 거기서 또 수정하면서 오류 수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애가

참석자 1 1:51:04

근데 내가 구독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배포 공간이

참석자 4 1:51:09

예 인부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입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참석자 2 1:51:15

아

참석자 1 1:51:16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일단 배포를 편하게 해주는 도구지 실제적으로 그런 건 다 입력을 해야 되구나.

참석자 4 1:51:25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배포가 이게 서비스가 가능하긴 한데 한 프로젝트까

지만 되더라고요.

한 달에

참석자 1 1:51:34

알겠습니다.

참석자 4 1:51:36

그리고 이거 프리뷰 기능은 누르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현재 프로젝트의 프론트 부분에 한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어떻게 실행하는지 애가 판단하고 설치 실행을 한 다음에 중앙에다가 프리뷰 그러니까 프론트 화면을 자동으로 띄워주고 프론트 화면 버튼 같은 컴포넌트를 직접 화면상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LLM한테 이런 식으로 코드 전달하는 것처럼 컴포넌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예 화면상에서 버튼 버튼을 여기 옮겨가지고 LM한테 해당 버튼을 수정해 달라는 식으로 질문을

참석자 1 1:52:21

그러니까 파일을 주듯이 컴포넌트를 줄 수 있다. 그거는 어떻게 줘요?
드래그 앤 드랍이에요.

참석자 4 1:52:28

그거는 여기 화면 우측 하단에 f12 같은 버튼이 있어가지고 그거 누른 다음에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 LM이 그 부분을 일

참석자 1 1:52:45

방식입니다. 디벨로퍼 툴 같은 게 있구나. 이거는 컷에 없는 기능이네요.
예 좋네요. 신기하다.

참석자 4 1:52:58

저도 이거 유튜브에서 보고 한

참석자 2 1:53:01

3주 전부터 쓴 거여 가지고

참석자 1 1:53:03

아무튼 이거 팀원들한테 다 공유를 나중에 해 주세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참석자 4 1:53:16

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공유해 주신 프로포트를 보면은 영어하고 한국어가 섞여 있는데 이게 왜 섞여 있는지

참석자 1 1:53:28

일단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제가 추후에는 여러분들이 챗gpt를 쓸 수도 있겠지만 작은 모델을 써야 될 일들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한국어 특화된 좋은 모델이 아직 시장에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기대해야 되는 오픈 소스 모델들이 라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라마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어를 지원을 하지 않아요.

라마가 실제 논문을 보면 0.00057%의 한국어 텍스트를 학습을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한국어를 잘하긴 해요. 가끔 토큰을 까먹거나 이런 물음표로 나오거나 중국어나 일본어로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근데 그래서 이제 프로포

트를 여러 가지 해보다가 이제 느낀 게 영어로 인스트럭션을 주고 한국어로 이제 답변을 하게 만드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한국어로 적은 거는 제가 그냥 일이 좀 급해가지고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빨리 좀 끝내려고 한 거고 사실 다 영어로 적은 거예요.

참석자 4 1:54:28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어가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국어가 있어가지고

참석자 1 1:54:33

그냥 좀 급한 문제여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2 1:54:49

네 정훈이 됐는데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인데 여기까지만

참석자 1 1:54:54

알겠습니다. 다 이해는 되신 거죠? 그러면

참석자 2 1:54:57

네네네

참석자 1 1:54:58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해야 될 거 좀 한번 올려보실래요?

정리했던 거

참석자 2 1:55:11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2 1:55:28

너스 부분이랑 그리고 시계 데이터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시나리오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수정을 해야 되긴 하지만은 요구사항 정의서랑 프로젝트 기획서 수정할 부분 같은 거만 네 기록을 해놨습니다.

참석자 1 1:56:02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그럼 이번 주까지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데이터셋 찾는 것까지죠?

참석자 2 1:56:15

네 그렇습니다.

참석자 1 1:56:17

다음 주는 이제 어떤 거 들어가요?

참석자 2 1:56:19

이번 주까지는 되게 마무리 끝나면은 저희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메타 님도 아시겠지만 리우 님의 기술이 너무 좋은데 나머지 팀원분들이 지금 못 따라가 저를 포함해서 못 따라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날 하루는 그냥 모든 걸 합을 하고 민원인 스터디를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날

참석자 1 1:56:39

너무 좋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팀원들이랑 자꾸 소통을 하면서 기술을 전파를 해야 돼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자꾸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맞아 그래야 이너 님도 이제 더 자기가 더 알려주려고 공부도 하게 되는 거고 자기 게 되는 거고 그래야 또 생산성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인호 님이 좀 봐주고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요.

그리고 또

참석자 2 1:57:06

그리고 만약에 스터디가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해서 각 팀원들이 리노 님이 선언할 수 있게 스펙이라든지 그런 걸로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린 리노 님이 그려주신 그 그레 플로우 랭 그래프 흐름도를 따라서 저희가 각 툴들을 역할을 맡아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참석자 1 1:57:31

그리고 아직 시간 많으니까 대략적으로 그러면 가이드라인은 잘 잡힌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오프라인으로 이제 한번 만나야 될 것 같고요.

참석자 2 1:57:45

거기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예 다음 주는 둘 다 오프라인인 걸 알고 얘기는 했는데 그다음 주부터는 원래 멘토님께서 평일에 오프라인 주말에 온라인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기억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근데 혹시 평일에 온라인으로 하고 주말을 오프라인으로 가져가신

참석자 1 1:58:04

네네네 그거는 가능

참석자 2 1:58:07

네. 평일에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저희가 멘토링이 끝나면 집에 들어가면 날씨가 바뀌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참석자 1 1:58:16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주말에 오프라인은 혹시 장소를 강남으로 해도 괜찮나요?

참석자 2 1:58:25

저는 그 나머지 팀원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구나 저도 괜찮습니다.

참석자 1 1:58:31

주 주말이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제가 저도 이제 조금 그러면 강남으로 그러면 주말에 토요일에 한번 시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프라인은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터디 카페 예약이 3시 30분 단위가 없거든요.

참석자 2 1:58:49

아 네네 제가

참석자 1 1:58:50

2시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만나는 거는 한 8시 7시 7시쯤

참석자 2 1:59:00

전혀 이유 없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네네

참석자 1 1:59:04

7시나 뭐 아니면 뭐 6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시켜 먹으면서 그냥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일단 다음 주로 한번 짜볼까요?

다음 주는 제가 아직 일정을 완전 나온 건 없는데 일단은 화요일 저희가 그때 몇 시로 잡았죠?

7시였죠 네. 7시

참석자 2 1:59:33

7시 반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참석자 1 1:59:35

일단은 최대한 빨리 와보세요. 빨리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하 그러면 화요일 건강 다음 주부터 온라인이구나 다음 주부터죠.

참석자 2 1:59:49

네네네 이번 주는 둘 다 오프라인으로

참석자 1 1:59:52

오케이 오케이 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가 특강

참석자 5 2:00:01

6월 11일에 있으셨다고 했던 11일이라고 했어요.

참석자 1 2:00:07

제 기억에는 저도 기억이 안 나가죠.

참석자 4 2:00:11

저도 11일로 들었습니다.

참석자 1 2:00:13

네 맞아요. 맞아요. 11일 11일은 수요일 그날 그 주는 수요일날에 거기서 그냥
죽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밥을 못 먹는다며 어떡하지

참석자 2 2:00:29

한 개 정도는

참석자 1 2:00:30

아니면 그냥 같이 나가서 먹고 오고 그냥 하고 이럴까?

참석자 2 2:00:36

네 네네 괜찮아요.

참석자 1 2:00:39

주위에 뭐 먹을 만한 데 있어요?

참석자 5 2:00:41

네 식당 한쪽

참석자 1 2:00:43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일단은 그럼 화요일 토요일로 둘 다 둘 다 일단 그러면 7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7시 3시간씩 일단 다음 주는 일단 진행을 할게요.

다음 주는 좀 많이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헤어한 것도 있지만 네 일정 외의 것들도 많이 준비를 좀 해보세요.

시간이 많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잘 따라와 주시고 있고 잘하고 그리고 화요일은 화요일은 이제 여러분들 오프라인이니까 그때는 사당에서 여러분들 가기 편하게 좀 만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화요일은 네 이번 주만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말 오프라인으로 하면 되니까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적어놨고 그럼 또 뭘 해야 될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이 프로젝트 말고도 다른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참석자 1 2:02:02

프로젝트 질문이 아니어도 됩니다.

참석자 6 2:02:08

조정아 가자

참석자 1 2:02:12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참석자 8 2:02:15

제가 지금까지 발표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제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발표해도 괜찮을

참석자 1 2:02:25

좋아요.

참석자 8 2:02:32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제가 원래는 이제 3주 차부터 데이터 준비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대충 챗봇으로 그 레그 구현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정훈 님이 이제 제 몫을 약간 발표를 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셀레늄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이제 정훈 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정확히는 셀레니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참석자 1 2:03:18

혹시 셀레니움 사용을 한다는 게 크롤링 때문에 그런가요?

참석자 8 2:03:21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지금 보이시는 이제 KT 클라우드 매뉴얼이 이제 제가 수집했던 이제 데이터고요.

이런 식으로 상품에 관한 이제 정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셀레니움을 이제 저희가 웹 크롤링도 배웠고 하니까 이제 크롤링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셀레늄을 쓰게 되었는데 이제 약간 한계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카테고리 가 많았어요.

이제 그리고 한 번 클릭하고 이제 텍스트를 불러오는 것까지는 뭐 쉬운데 이제 여러 개를 클릭을 하고 또 여기 들어가서 일일이 이렇게 텍스트를 받아오고 이런 과정도 필요하고 또 이게 한 번 이렇게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게 범위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에러가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것을 스크롤 해서 이제 범위를 다시 찾는

그런 과정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도 해서 일단 제가 손으로 다 이렇게 HTML 문서로 일단 만들어 뒀습니다.

참석자 8 2:05:02

그렇게 해서 이제 셀레어디움을 안 쓰게 된 건데 혹시 이제 더 좋은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혹시

참석자 1 2:05:13

혹시 크롤링 방식은 어떤 거 배우셨어요?

참석자 8 2:05:16

저희가 배운 거는 이제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이제 정적 크롤링 정적인 콘텐츠를 크롤링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제 셀레늄 같은 거는 이제 강의 시간대는 강사님이 알려주시지 않았고 제가 따로 이제 GPT나 이제 자료 검색을 해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참석자 1 2:05:42

셀레늄으로 실제로 좀 크롤링이 빠센 부분이 많아서 지금 제가 갑자기 막 기억이 안 나는데 롤링이 제가 옛날에 한 5년 전에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아마 지금 제가 정확한 용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나 나중에 혹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정적 크롤링 할 때 어떻게 써요?

코드를 대략적인 거였어요.

참석자 2 2:06:13

잠시만요.

참석자 8 2:06:41

이제 제가 전에 이제 강의 내용을 정리했던 것들인데 URL을 쓰고 이제 헤더 같은 정보들을 이제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약간 우회하는 식으로 이렇게 리퀘스트 요청을 해서 이제 받아오고 뷰티풀 스쿨을 통해서 이제 파싱하고 파인드 올일 써가지고 이제 해당 클래스들을 이제 받아온 다음에 뭐 트립해서 이런 식으로 스크롤링 하는 거를 했습니다.

참석자 1 2:07:30

제가 좀 이걸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데이터 그거 크롤링 할 때 잠깐만요.

참석자 1 2:08:29

혹시 헤더 헤더 바뀌가면서 헤더 혹시 막혀요?

참석자 8 2:08:37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참석자 1 2:08:40

이전에 제가

참석자 8 2:08:46

일단 강사님이 알려주신 거는 이제 이 두 필드가 전부였습니다.

참석자 3 2:08:53

이거는 진짜 혼나하네 이걸 안 되고

참석자 1 2:08:56

옛날에 그 f12 볼 누르면 네트워크 탭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특정 헤더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유저 에이전트리 레퍼럴 엑셉트 쿠키 엑스퀘스트 위드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혹시 그렇게 다 찾아가지고 넣어서 했어요

참석자 8 2:09:18

그렇게까진 안 해봤

참석자 1 2:09:20

했죠. 제가 옛날에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하면 사이트들이 뚫렸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긴 했는데 실제로 11번가 에 게시는 직원분들도 이런 식으로 다 콜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냥 파이썬 리퀘스트만 보내면 보수로 간주하고 차단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헤더를 이렇게 넣어주는 게 이제 사람이 브라우저로 이제 접속한 것처럼 꾸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넣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넣어주면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GPT나 이런 걸로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헤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헤더에 FCB 개발자의 네트워크 탭에 있는 어떤 특정한 걸 넣어야 되는데 그걸 넣으면 뚫리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자바 스크립트로 그려지는 페이지는 안 긁힐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참석자 1 2:10:35

그럴 때는 이제 뭐 셀레니움 같은 걸 써도 되고 반이 다

참석자 8 2:10:44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데이터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나니까 3일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했으니까 이제 한번 레 그 같은 거 한번 구현을 해보자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마 DB 만들고 그거는 이제 전 처리하고

참석자 1 2:11:22

이건 테스트용으로 한 거죠.

참석자 8 2:11:24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마 DB 만들고 이제 네 이제 간단하게 유저 메시지를 받으면은 이제 세이브를 하고 이제 크로마 DB랑 연결을 해서 사실은 크로마 디비 불러오고 리트리버 회수기 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서 리트리버 QA에다가 이제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대충 했는데

참석자 1 2:12:08

왜냐하면

참석자 1 2:12:14

윈도우 써도 돼요.

참석자 2 2:12:19

예 그렇습니다.

참석자 7 2:12:21

성하는 시간 다 듣고 있을 거야.

참석자 3 2:12:23

잘 맞아

참석자 1 2:12:28

아마 여러분들 회사 가면 다 백곡 쓰실 거예요. 대부분

참석자 8 2:12:33

네 이런 식으로 일단 구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참석자 3 2:12:41

고기 나아야지 국 먹고 넣어줘야 맛있겠다. 잠깐만 아니 앞접시었는데

참석자 1 2:12:48

그리고 이거는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시연할 때 테스트할 때 이거를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테스트 API를 만들고 현업분들한테 줘요.

그럼 현업들한테 이거 테스트 좀 해주세요 하면 받자마자 하시는 말이 뭐라고
쳐야 돼요?

이러거든요. 자기들 쳐라고 만들어준 건데 뭐라고 쳐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좀 그때 처음에 당황을 했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 챗gpt 처음에 들어가면 맨 처음 화면에 보면 이런 거 해보세요 하면
서 뭐 뭐 뭐 요약해줘 오늘 뉴스 찾아줘 이렇게 테스트 쿼리들 위에 UI 나와 있
는 거 알죠?

그런 것들을 좀 넣어주면 그분들이 아 대충 이런 거 하는 데구나 하고 좀 찾아 나가거든요.

나중에 혹시 최종 프로젝트 만들 때 그런 거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2 2:13:36

아 예 알겠습니다.

참석자 8 2:13:38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챗봇한테 이 상품 관련 질문을 하면은 이제 레그된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이제 답변해 주는 일단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고 너무 좀 지저분하면 이게 계속 데이터가 SQL 라이트에 남아 있으니까 지저분하면 이렇게 대화를 삭제 삭제하는 기능까지 넣어 뒀습니다.

참석자 1 2:14:11

그냥 방향 당방향 지식 검색만 하는 게 낫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챗봇이라고 적으면 사람들이 운동을 해요.

물론 대략적으로 테스트로 만드신 건데 그냥 혹시나 저는 그냥 자꾸자꾸 알려 드리는 거예요.

혹시 혹시나 오해하시지 마세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추후에 그 프로젝트 나중에 만드실 때 지금은 당연히 그냥 테스트하신 거니까 대충 적어놓고 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거 만드실 때 그냥 이럴 때는 그냥 검색기라고 적으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혹시나 나중에 현업 현업에 나가서 이거 챗봇이 하면 대화가 되는 줄 알거든요.

지금 이게 멀티턴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왜냐하면 이런 용어 가지고도 엄청 테크를 많이 걸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참석자 1 2:15:04

그냥 이거는 그냥 이거 당연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만든 거 아는데 혹시나 제가 그냥 중간중간 생각나는 그냥 제 노하우 같은 거 알려주세요.

참석자 8 2:15:13

알겠습니다.

참석자 1 2:15:16

네 이 소가스

참석자 8 2:15:17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조금 개선할 부분이 제 생각에도 많아요.

이게 일단 요 챗봇한테 이제 전송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 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톱니바퀴가 돌거든요.

어디요? 여기 이제 그런 식으로 전송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돌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네 답변이 되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 이제 로딩 중입니다.

뭐 이런 것도 띄워야 될 것 같고

참석자 1 2:15:58

아니면 실시간 스트림으로 주는 것도 좋아요.

참석자 8 2:16:03

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 제가 지금 처리가

참석자 8 2:16:13

메시지를 유저 메시지를 저장을 한 다음에 어땠냐 챗봇 응답을 받아서 또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렌더를 시키는 방식이라서 이제 요 챗봇 응답이 다 나와야 이제 이 두 개가 전송이 돼가지고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원래는 이제 저희가 또 세션을 뒤킵고 이제 제트피티 같은 데 보면 이제 세션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것도 이제 넣어서 이제 관리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참석자 1 2:17:04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안 해봤으면 나중에 나중에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거든요.

저는 이런 거 너무 좋고요. 그래서 지금 개발도 하시지만 지금 그런 UI UX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런 것들도 적어두세요.

적어두시고 아까 말했듯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을 위해서 치즈 BT 같은 거 참고를 해도 처음에 커리 날리면 이게 라우터가 웹 검색이면 웹 검색 중 이렇게 해가지고 로딩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스트림으로 캐릭터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안에 UI UX 팀들이 엄청 고민을 하고 ab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로그 분석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셔요. 혹시

참석자 8 2:17:59

혹시 제가 말하지 않은 것들 중에 혹시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혹시 있나요?

참석자 1 2:18:07

지금까지는 다시 코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냥 기본적인 레그 구성하는 데서는 뭐 크게 그런 부분은 없고 이게 나중에 배포를 하려면 ec2 같은데 크로마 디이니까 그 자원 그대로 먹고 가는 거여서 그냥 바로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나쁘진 않은데 지금 혹시 이거 프로피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참석자 8 2:18:36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만든 거라서 이제 이거를 썼거든요.

리트리버 네네 QA를 써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고수준 라그인가 해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네 맞아요. 프롬프트나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자동으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따로 건드리지 않았습시다.

참석자 1 2:19:01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포팅을 할 수 있는 그 체인을 만들어 두는 게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추후에 포팅을 저런 식으로 답을 받지 않고 포매팅 같은 거를 받아야 될 때가 많아요.

회사에서는 그냥 성의 없이 이렇게 그냥 답을 뱉 내주는 것보다 그런 프로포트를 받는 형태로 좀 만들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납득할 만한 그런 포맷을 좀 주는 마크 다운이 더라든지 아니면 그냥 예쁘게 뭐 어떤 휴샷으로 어떤 답변할 때 꼭 그런 포맷을 준다면 그런 것들을 좀 짜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자 8 2:19:38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트리버 QA를 써가지고 따로 프롬프트나 그런 거를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 현업에서는 이제 아예 생으로 프로포트를 만들고 이제 뭐였지 아웃파서 같은 것도

조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다 냉체인을 구현하는 방식인가요?
산업에서

참석자 1 2:20:16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로 모듈화를 시켜가지고 좀 구성을 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거는 추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포팅을 실제로 해주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잠깐 저도 지금 뭐 보고 있는데

참석자 4 2:20:35

저거 모듈 아마 뜯어서 보면은 저것도 시스템 프롬프트 아마 있을 거예요.
따로 뽑을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참석자 1 2:20:44

그

참석자 1 2:20:52

이런 거 같은 거는 이제

참석자 1 2:21:12

체인 같은 거 만들면 실제로 이제 서브라이즈 체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예 프롬프트 체로 다시 또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체인을 쓰는 것보다 그냥 프로포트를 그냥 따로 템플릿을 만들어서 돌려가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이거 이런 체인 같은 구조는 나중에 좀 관리하기 편하게 하려고 만든 거긴 한데 프로덕트 레벨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냥 따

로만 있습니다.

참석자 8 2:21:58

드릴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참석자 1 2:22:00

아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참석자 1 2:22:15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뭐 다른 또 질문 있을까요?

참석자 2 2:22:21

혹시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네네 이건 그냥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일정 조율 같은 거에서 그 궁금증인 거긴 한데 네 제가 화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큰 패런트 피쳐들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이 안에는 피쳐가 있고 이 피쳐 안에 관련된 테스크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이거는 제가 준비를 해 온 다음에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살짝 망설이긴 했는데 혹시 마감일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통 어떻게 지정을 하시는지 모니터 현업 분들은

참석자 2 2:23:25

물어보는 게 맞아

참석자 1 2:23:30

이걸로 저희들이 사용해서 마감일을 지정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정확하게는 그거를 좀 봐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기 프로젝트는 기 프로젝트는

저도 처음 써봐요.

네네네 실제로 그걸 사용하거나 이런 것보다 저희 개발단에서는 이제 주간 회의록도 따로 적고 그다음에 이제 기색은 이제 이슈들만 관리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하나의 서비스만 되는 게 아니고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그런 거 이슈 위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거를 이제 리더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다른데 그 파트장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트래킹을 하면서 데드라인을 준다는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듀 데이를 주긴 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걸 통해서 줬던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참석자 2 2:24:24

제가 이걸 왜 여쭙보냐면 다른 제가 학원에 종 조가 5개 있는데 각자 조에서 팀장들이 있을 거고 다른 팀들의 기 프로젝트라든지 webs 같은 걸 다 구경을 해봤는데 다른 팀장 중에 한 분은 프로젝트 프로젝트인가 여기에 있는 모든 이슈랑 그런 거에 대한 일정 거래서 다 짜놓으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미리 네네네. 네 일정이랑 언제부터 언제 시작해서 스타드 데이트는 언제고 앤드 데이트는 언제고 어떤 분이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물론 기 프로젝트가 정말 좋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 네

참석자 1 2:25:13

근데 미리 짜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게 오버가 되면 오버 된 걸 반영을 하면 되는데 네 미리 다 짜놓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거 KPI나 이런 멤버스 같은 걸 측정을 해요.

이게 얼마나 걸릴지 항상 먼저 물어봐요. 네 회사에서 이거 얼마나 걸려요?

이런 걸 물어본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면서 해야죠.

이게 안 되고 거기서는 이제 그걸 측정해서 얼마가 돈이 들지 한 사람당 이제 월급도 이제 다 측정을 해놔야 되잖아요.

프로젝트 네 그런 것들을 미리 반영을 다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이 데드라인이 눈에 안 보이면 그대로 또 행동을 잘 안 해요.

또 네 그래서 좀 약간 서툴고 혹시나 사람들에게 이제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그런 작업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짜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참석자 2 2:26:10

네네 알겠습니다. 여쭙보고 싶은 건 그 부분이긴 합니다.

네

참석자 1 2:26:16

네 랭체인은 제가 이전에 코드를 보니까 체인 같은 거 쓸 때는 체인 안에 프롬프트를 변수를 줄 수가 있어요.

참석자 1 2:26:33

커스텀 프롬프트라고 저 변수를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대충 쳤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QA 리트리블 QA에 이런 식으로 아마 넘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경규희 님이었나?

참석자 8 2:26:52

네 맞습니다.

참석자 1 2:26:53

규희 님 아무튼 나중에 그걸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참석자 2 2:26:56

예 알겠습니다.

참석자 1 2:26:58

규희 님이 아까 했었죠?

참석자 2 2:27:01

네 맞습니다.

참석자 1 2:27:02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석자 1 2:27:17

네 마지막 질문 한두 개 있으실까요? 그거 하고 이제 끝내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참석자 2 2:27:26

혹시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참석자 5 2:27:29

코딩이나 그런 쪽 아니어도 괜찮나요? 네 어떤 거요?

코딩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 아닌데 괜찮나요?

참석자 1 2:27:36

네네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면 알려드릴게요.

참석자 5 2:27:39

제가 프로젝트가 해본 게 이거 이거 학원에서 하면서 민이랑 이번 파이널이 거의 끝인데 네 이거 끝나고 원서를 쓸 때 무슨 조언 같은 거 쓰라고 할 때 그런 거를 적고 만약에 좀 한 곳에서 끈기 있게 오래 일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알바를 옛날에 했던 거 알바를 좀 길게 했던 그런 거를 적는 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그냥 안 적는 게 나을지가 좀

참석자 1 2:28:07

아 제가 지금 질문을 100% 잘 이해를 못했는데 혹시 질문이 이력서를 적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어디 곳에서 끈기 있게 일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거를 적어도 되냐 이 말인 거예요.

네 어떤 업종이에요? 혹시

참석자 5 2:28:26

그냥 그냥 일반 알바하는 것처럼 서비스업이랑 그런 아르바이트 형식이어서 완전 상관이 없긴 한데 그냥 오래 일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참석자 1 2:28:37

거기는 얼마나 일하셨어요?

참석자 5 2:28:39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했어요.

참석자 1 2:28:42

1년 반에서 2년 정도

참석자 1 2:28:50

저는 안 적었어요. 안 적었는데 적어놔도 안 볼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야기하다가 예를 들면 적었어요.

적고 안 적고가 서류 합격 불합격에 대해서는 솔직히 차지하는 건 없거든요.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지가 좋고 그다음에 면접도 잘 보고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냥 이야기하다가 근데 옛날에 카페에서 왜 이렇게 오래 일했어요 하면서 한 마디 그냥 그냥 아이스브레이팅 용도로 이야기해 보는 정도는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면접도 마음에 안 들고 기술도 별로 없는데 그걸 적었으면 뭐 그러니까 관련도 없는 거야 여기 적어놔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은 없어요. 그냥 케박해요.

참석자 5 2:29:44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5 2:29:51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1 2:29:54

알겠습니다.

참석자 1 2:29:58

이력서 같은 것들을 시간 날 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적어두세요.

적어두시고 그러니까 레주메 형식으로 그러니까 뭐 지원 동기 이런 거 말고 내가 했던 업무 같은 것들이나 이때까지 하는 것들을 미리 정리를 지금부터 조금씩 해두시는 게 좋거든요.

나중에 다시 다 적으려면 좀 까먹어요. 특히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적는 거는 나중에는 좀 지금 내가 고민했던 이런 부분들을 두루뭉술하게 적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도 잘 항상 프로젝트 끝나고 다시 다짐을 해요.
이거 미리 정리를 해놓고 다시 정리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막 다 했
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잘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습니다.

참석자 5 2:30:45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1 2:30:53

그리고 혹시 이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지금 강사님이랑도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네네 강사님은 따로 뭐 최근에 피드백 준 게 있을까요?

저도 자꾸 시크를 좀 맞춰 나가야 돼가지고

참석자 2 2:31:10

강사님이랑 저희가 저희가 일조라서 저번 주 월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 월요일
날 제일 먼저 피드백을 받아서 그때는 막 피드백 받은 날 저희가 타겟을 통신사
분석 부서라고 정해가지고 그때는 기능적인 코드적인 피드백이라기보다는 흐
름도 방향 계획 기획 단계에 대한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참석자 1 2:31:40

기획 단계요 예를 들면 어떤 거에

참석자 2 2:31:42

예를 들면 RNR 같은 걸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원에서 준
프로젝트 기획서의 기존 양식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네네네.
그리고 역할 분배는 한 사람이 몰아서 하는 게 아닌 시스템 흐름도가 여러 개

있다면 각 흐름을 하나를 맡아서 하는 게 좋더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셨습니까.

참석자 1 2:32:09

그런 거 말고 이제 기획 쪽에는 따로 의견을 주신 게 있어요.

참석자 2 2:32:14

기획 쪽에는 네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일단 다르긴 했습니다.

참석자 1 2:32:21

그러면 전체적인 그냥 안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 이런 부분

참석자 2 2:32:28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참석자 1 2:32:31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뭐 이슈 있으시면 따로 이제 알려주시고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다음 주 일단 화요일 날에 일단 먼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석자 2 2:32:45

화요일 날 저녁 7시 닭 사당역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1 2:32:49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수고하셨고 따로 이제 일단 화요일 날 뵙죠.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2 2:32:59

네 혹시 사진 찍어두셨나요? 네 방금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석자 1 2:33:03

네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참석자 4 2:33:05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석자 8 2:33:06

수고하셨습니다.

clovanote.naver.com